

편견을 깬 정우영, 가뿐하게 '역스플릿'

(LG)

좌타자 많은 NC 상대로 완벽피칭
위기 상황에서 5아웃을 8구로 끝내
만 30세미만 팀 최다홀드 가능성



일반적인 잠수함 투수들은 좌타자에게 약하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꾸준히 막아내더라도 한두 경기 고전하면 편견이 다시 고개를 든다. 감독은 이런 편견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믿을 팬'은 신뢰에 보답했다. 정우영(22·LG 트윈스)의 구단 새 역사 작성이 임박했다.

LG는 4일 창원 NC 다이노스와 시즌 첫 경기에서 2-1로 이겼다. 가장 큰 위기는 2-1로 역전에 성공한 7회말이었다. 함덕주가 1사 후 연속 볼넷으로 1·2루 위기에 몰리자 LG 벤치가 움직였다. 선택은 정우영이었다. 박민우~나성범 등 좌타자들을 연달아 만나기에 과감한 선택이었다. 정우영은 박민우를 초구 병살타로 돌려세우며 가뿐히 위기를 지웠다.

8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정우영은 선두타자 나성범에게 중전안타를 내줬다. 그러나 양의지에게 투수 땅볼을 유도해 역시 병살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알테이까지 3구 삼진으로 낚아 이닝 마무리. 아웃카운트 5개를 잡는 데 필요한 투구수는 8개뿐이었다. 볼은 하나도 없이 모두 스트라이크였다.

정우영은 지난해 65경기에서 4승4패 5세이브20홀드, 평균자책점 3.12를 기록했다. 시즌 피OPS(출루율+장타율)는 0.530으로 철벽이었다. 우타자 상대(0.508)보다 좌타자 상대(0.569) 기록이



LG 정우영은 지난해 좌타자보다 우타자를 더 많이 만났다. '사이드암은 좌타자에 약하다'는 편견이 정우영을 놀렸다. 하지만 류지현 LG 감독은 '역스플릿'을 택했다. 그렇게 정우영은 LG의 새 역사에 다가서고 있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정도 차이면 '약했다'보다 '약간 덜 강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가끔 제구가 흔들려 4사구 허용이 있었지만 피안타는 적었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투심패스트 볼이 있기 때문에 공략에 용이하다. 류지현 감독은 정우영의 역스플릿 가능성을 믿으며 좌타자 승부에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좌타자(110타석)보

다 우타자(195타석)를 훨씬 더 많이 만났던 정우영 기용법의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그 결과가 4일 NC전 투입으로 이어졌고, 정우영은 증명했다.

구단 새 역사도 올해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LG 유니폼을 입고 만 30세 미만에게 가장 많은 홀드를 기록한 이는 유원상(47개)이다. 그 뒤를 이동현(40개)이 있고, 정우영(37개)은 3위에 랭크돼

있다. 1위와 10개차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전반기 내로 달성 가능성이 높다. 궁극적으로는 류택현(122개)이 보유한 LG 프랜차이즈 최다 홀드 기록에도 도전장을 낼 만하다. 아직 이른 얘기지만, 이를 바귀 말하면 정우영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우영의 첫 걸음은 산뜻했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뜨거운 출발 박병호, 2018년 '7할대 장타율' 다시 한번!

개막 2연전서 홈런 포함 장타율 3개 타격자세 수정 효과...거포본능 부활

뜨겁게 새 시즌을 연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35)는 '역대급' 기록을 만들 수 있을까.

박병호의 2021시즌 출발이 심상치 않다. 일찌감치 뜨거운 장타력을 과시하고 있다.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민거포'다.

박병호는 삼성 라이온즈와 개막 2연전에서 8타수 3안타(타율 0.375) 1홈런 2타점 3득점을 올렸다. 팀도 개막 2연승을 거뒀는데, 그 선봉에는 중심타자 박병호가 있었다.

눈여겨볼 점은 개막 2연전에서 박병호

가 터트린 3안타 모두가 장타였다는 것이다. 3일 2루타 두 방에 이어 4일에는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다. 장타율로는 1.000이다.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일찌장타가 나왔다는 게 그에게는 의미가 크다. 지난 2년간의 부진을 씻어내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올 시즌 후 프리에이전트(F.A) 자격을 얻는 효과가 벌써부터 나오는 듯하다. 키움으로서도 박병호가 시즌 내내 꾸준히 장타력을 발휘해준다면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박병호는 2021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타격 메커니즘을 익히기 위해 강병식 타격코치와 특훈을 마다하지 않았다. 홈런기 감독도 "본인과 타격코치가 함께 얘기를 나

누며 새로운 타격자세를 익히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새로운 타격자세로 일찌감치 힘을 내고 있는 박병호는 '역대급' 기록을 노린다. 2018년 작성한 개인 한 시즌 최고 장타율 0.718다. 그해 113경기에서 박병호는 타율 0.345, 43홈런, 112타점, 88득점, 장타율 0.718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KBO리그로 복귀한 첫 시즌임에도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5할대(2019년 0.560), 4할대(2020년 0.450) 장타율에 그친 지난 2년간은 스스로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국민거포'다운 위상을 되찾으려는 박병호가 다시 한번 7할대 장타율에 진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키움 박병호는 3일과 4일 고척돔에서 열린 삼성과 개막 2연전에서 8타수 3안타 1홈런으로 연승에 앞장섰다. 3안타가 모두 장타였기에 부활에 대한 기대는 더 크다. 고척 | 김민석 기자 marineboy@donga.com

'이강철 감독 믿음' 끝내기로 화답한 배정대

"센터수비·체력 갖...확실한 선수" 개막전부터 끝내기 포함 멀티히트

KT 이강철 감독(55)은 새 시즌 개막 이전부터 배정대(26)에 대해선 "확실한 선수가 한 명 더 나온 것 같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센터라인 수비가 중요하데, 중견수 배정대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중견수가 담당해야 할 수비범위가 넓은데 체력이 좋아 걱정이 없다. 타격도 지난해처럼 꾸준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대표팀 예비엔트



KT 배정대(왼쪽)를 향한 이강철 감독의 믿음은 확실하다. 리그 최정상급 외야수비와 정확한 타격에 성실함까지 갖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에 보답하듯 배정대는 시즌 첫 경기인 4일 수원 한화전 9회말 끝내기안타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수원 | 주현희 기자 leth1147@donga.com

리에도 선발된 선수다. 풀타임 2년차 시즌이지만 스스로 준비를 잘하고 있어 코칭스태프가 크게 얘기할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의 호평에 배정대는 개막전부터 실력으로 화답했다. 4일 수원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한화 이글스전에 중견수 겸 8번타자로 선발출장해 2-2로 맞선 9회말 1사 1·2루서 끝내기 우전안타를 터트리며 팀의 시즌 첫 승을 책임졌다. 4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시즌 준비가 성공적이었음을 첫 경기부터 증명했다.

지난해 풀타임으로는 처음 1군 무대를 경험한 배정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44경기를 모두 뛰면서도 크게 지친 기색 없이 타율 0.289에 154안타를 기록했다. 페넨트레이스 막판 타격 페이스가 다소 주춤했지만, 프로 데뷔 이후 첫 두 자릿수 홈

런(13개)까지 터트리며 공수겸장임을 뽐냈다. 풀타임 2년차를 맞은 올 시즌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수 있지만, 첫 경기부터 흔들림 없이 제 몫을 했다.

올해 첫 경기는 8번타자로 출발했지만 언제든 상위타선에 배치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리드오프로 가장 많은 타석에 들어섰고, 4번을 제외한 모든 타순을 경험했다. 부담이 덜한 타순에서 더 좋은 기록을 보였지만 타순에 관계없이 안타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과시했다.

배정대는 강백호와 함께 KT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선수다. 기본 좋은 출발을 보인 배정대가 코칭스태프의 믿음과 기대처럼 풀타임 2년차에 더 좋은 결과물을 낼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야구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6일 화요일 3

스포츠동아 창간 13주년·프로야구 개막 1000만원어치 야구용품 타기 퀴즈 잔치

"이름 새긴 글러브·배트 등 최고급 야구용품 받으세요"

프로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3주년을 기념해 '야구용품타기 독자사은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퀴즈 5개의 정답을 모두 맞힌 분 중 20명을 추첨해 프로선수용 글러브, 배트 등 야구용품(1인당 50만 원 상당)을 선물합니다. 특히 글러브에는 당첨자의 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우편엽서에 총 5문항의 정답을 적고, 신분 오른쪽 하단의 응모권을 붙여 스포츠동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1. 2021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감독이 아닌 인물은 누구일까요?

- ①키움 흥원기 감독 ②롯데 허문회 감독 ③LG 류지현 감독 ④SSG 김원형 감독

Q2. 다음 중 한국시리즈 우승 경험이 없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NC나성범 ②SSG 추신수 ③삼성 오승환 ④SSG 최정

Q3. 2020시즌 프로야구 도루왕은 누구일까요?

- ①삼성 박해민 ②키움 김해성 ③NC 박민우 ④KT 심우준

Q4. 다음 중 신인왕 출신이 아닌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KIA 최형우 ②LG 김현수 ③키움 오주원 ④NC 양의지

Q5. 다음 중 프로야구단의 연고지가 아닌 지역은 어디 일까요?

- ①인천 ②성남 ③부산 ④광주

●응모요령 : 정답이 하나라도 틀리거나 응모권이 없으면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엽서에는 이름, 주소, 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접수만 가능.

●응모마감 : 4월 16일(금)까지 본사 도착 엽서 중 20명 추첨

●당첨자 발표 : 4월 23일(금)자 스포츠동아 지면

●상품 : ILB(구 MAX스포츠)가 제조한 프로선수용 글러브 및 배트 등 50만 원 상당의 최고급 야구용품

●보내실 곳 : (03737)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9 동아일보 충청로사무 10층

●문의 : 02-361-1633

●협찬 : ILB

추신수, SSG닷컴 '랜더스위크' 광고모델



SSG 랜더스 추신수(39)가 SSG닷컴의 '랜더스 위크' 광고 모델로 나선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SSG닷컴은 5일 "SSG랜더스의 창단을 기념해 오늘부터 11일까지 '랜더스 위크'라는 타이틀로 각종 할인행사를 실시한다"며 "광고 모델로 추신수 선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랜더스 위크' 행사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SS G페이 결제 시 사용 가능한 15% 할인 쿠폰과 일반결제 12% 할인 쿠폰이 각각 선착순 2만 명에게 제공된다. 또 속배송이나 새벽배송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3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을 SSG머니로 돌려주며, 야구 관람과 응원을 위한 야구 글러브, 자외선 차단제 등 야구용품도 할인 판매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